

대학사회

조교, ‘노동권 사각 지대’ … 장학금, 최저임금 못 미쳐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우리학교에서 행정조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행정조교를 하는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으니 말 그대로 열정페이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조교란 대학에서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연구나 학사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과 사무실에서, 단과대 행정실에서, 본부 행정부서 등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이들은 대학 업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은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간단한 업무 보조를 하고 학업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리학교에서도 조교장학제도를 운영하면서 노동시간에 따라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연구부터 학사행정에 이르기까지 단순 보조를 넘어서 대학 업무 전반에 걸쳐 조교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구슬아 위원장은 조교를 두고 “대학의 유지·재생산은 물론 기술개발, 연구 성과물 발견 등 특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는 처우, 특히 노동 강도에 비해 받는 처우는 열악하다. A 씨는 “근무 시간을 짊어주며 일하고 조교장학 최대액을 받아도 최저 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생계비에 보탬은 커녕 등록금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지급받는 장학금 또한 일하는 시간을 따져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라고도 덧붙였다. 조교 급여는 임금이 아닌 장학금 감면 형식인데다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해도 야근 수당이나 주휴 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우리학교 인문계열 단과대 조교로 일하다 졸업한 B 씨는 “24시간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며 “교수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선배에게 연락이 갔고 새벽에 불러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B 씨는 “교수의 개인 비서였다. 교수님의 식사 배달, 개인적인 은행 업무도 대신 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또한 근무 시간은 규칙적인 편이지만 “우편물이나 소포를 부쳐달라고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공계열 연구실 조교인 C 씨는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나와 일한다”며 “아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은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간단한 업무보조를 하고 학업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일반의 인식

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장학금으로는 등록금 절반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구 위원장은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도제적 관계, 즉 위계의 관습이 여전히 지배적이라 온갖 영역에 있어 교수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어도 대학원생 개인이 즉각적으로 이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대학원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조교를 택하는 대학원생이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시행한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대학원생 중 65.7%가 ‘장학금 및 연구 수행 등 수입이 없으면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사례처럼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행정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0.1%,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응답 역시 19.5%로 나타났다.

구슬아 위원장은 기형적 형태의 원인을 대학 입장에서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 장학생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최저 급여, 4대 보험, 복리후생 등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대학 평가

에서 장학금 관련 지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7개 대학원 중 절반이 넘는 24개(51%) 대학원들이 연구·행정·수업 조교 11,616명의 급여 67억 원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6개 대학 대학원생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은 대학원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호하여 대학원생 연구 환경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국대 사례는 대표적이다. 지난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총장을 고발했다. 이후 동국대는 조교 제도를 개편해 행정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노웅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미

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조교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학별로 운영 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행정 해석을 내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와 김현용 근로감독관은 “최근 들어서는 개별 사안 차원이지만 대학원생 조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현재로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의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해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조교의 근로 시간,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임금 등의 사항을 대학 공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을,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조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는 이달 내로 조교 채용 시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업무 시간을 주 20시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업무협약서’가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 방침에 대해 구 위원장은 “대학원생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표준 약속이 마련됐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고의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각 대학이 얼마나 이를 충실히 따르게끔 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문학협동조합 김민섭 작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법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조교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교무처 손수민 직원은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모두 내부 논의 중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조교가 규정 시간 이상의 일을 하거나 정해진 업무와 무관한 일에 동원되는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교무처 차원에서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경희대학교 학생을 위한 대학원 학과 설명회 제1회 일반대학원 입학 FAIR 개최

일반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회 대학원 입학 FAIR를 개최합니다.
금번 FAIR는 경희대학교 학부생들에게 일반대학원 입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됩니다.
대학원 각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상담해 드리므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학부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대상 : 대학원 진학에 관심있는 학부생 누구나

일시 및 장소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2018.10.04.(목) 13:30~16:30 스페이스21(신축건물) 앞 원형 광장	2018.10.10.(수) 13:00~17:00 중앙도서관 1층 로비

참가자 특전

- 대학원 학과별 교수님 또는 선배들로부터 대학원 진학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학과소개, 교육과정, 연구수행, 장학, 졸업 후 진로 등 유익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본교 학부생이 대학원 입학 시 제공되는 각종 장학제도를 상담해 드립니다.
- 참여하신 분에게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문의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hu.ac.kr>
- 서울캠퍼스: 02-961-0121~4 khsb2000@khu.ac.kr
- 국제캠퍼스: 031-201-3501~4 khwb6000@khu.ac.kr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지방보훈청**

**따뜻한 보훈**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프로젝트 안내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프로젝트

서울 이시영, 민영환, 김상욱, 이봉창



주관

 광복회

내용

• 클라우드 펀딩 모금을 통한 서울지역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기간

•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

방법

• 온라인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기부
• 링크 : <https://www.ohmycompany.com/reward/5565>